

<기획> 포스트 코로나시대, 어디쯤 왔을까

5인 이상 집합금지, “불편하지 않아요”

‘최소한 접촉 위해 모임금지가 최선’ ‘소상공인 위해 완화된 조치 필요’ 다양한 의견

지난 23일 군산, 전주 청소년기자단이 연합하여 '2021 동계 청소년기자 인터넷'을 진행했다. 기자로 위촉받아 활동하는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활동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신청하여 청소년기자 인터넷 과정을 경험했다. 군산과 전주, 완주, 정읍 등 20여명의 전북지역 청소년들은 조를 이루어 아동학대의 지역사회 상황, 코로나 이후 모임제한, 전북지역의 기후위기, 방학 중 자기계발(청소년자격을 취득 등)을 주제로 인터뷰, 자료조사, 사진 촬영 등 관련 기사를 직접 써보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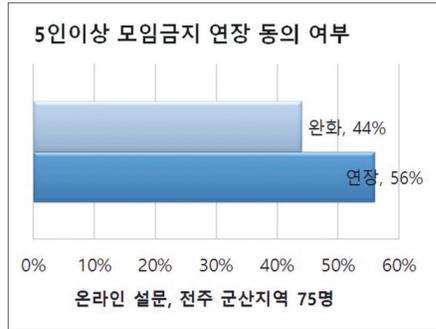
③ 사적모임 제안조치 유지에 대해 물으니

이정재, 김준수 청소년기자

우리의 삶을 갑작스럽게 뒤흔친 코로나의 장기화와 함께 여러 번의 대유행을 거쳐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진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시설과 모임에서 집합금지 조치가 일정 기준 완화되면서 사람들은 여가생활과 편의시설을 좀 더 넓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시민들은 한 마음으로 대유행을 막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차 유행 시점에서 가까운 전염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등의 조치에 대한 연장여부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터넷 활동 3조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법안의 긍정적 효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관련 방역 수칙 준수와 5인 이상 집합금지 지속'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서는 75명이 응답하였고, 전체 참여자 수에서 14세~19세의 연령대가 64%(48명)로 1위를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20대가 22.7%(17명)로 2위, 30대가 10.7%(8명)로 응답했다. 주로 젊은층이라고 지적하는 10대~30대까지의 응답자가 주를 이루었다. 본인이 노래방, 헬스장 등 편의시설에서 마스크 착용과 방역 수칙 준수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예가 98.7%(74명) 아니요가 1.3%(1명)으로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한 인식을 매우 부정적부터 매우 긍정적까지 5분항으로 나누어 물



어본 결과 보통 37.3%(28명), 긍정 32%(24명), 매우 긍정 13.3%(10명), 부정 12%(9명), 매우 부정 5.3%(4명)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5인 이상 집합금지 정책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 아니요 62.7%(47명), 예 37.3%(28명)로 아니요라는 답변이 과반수를 넘었다.

불편의 이유를 묻는 주관식 문항에서는 '친구들과 모임이 줄어들었다', '5인 가족이지만 식당에서 제지를 당한다', '3대 이상의 가족들이 모이지 못해서 아쉽다', 'SNS에서 지인들이 5인 이상 모이는 사진을 종종 보았는데 약속을 취소한 것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앞으로도 계속 제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예가 56%(42명), 아니요가 44%(33명)으로 나왔다. 그 이유를 묻는 주관식문항에서는 계속 제한되어야 한다고 선택한 응답자는 '모이는 사람이 많을수록 확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유지되어야 한다', '아직까지는 접촉을 최소화 하기위해서 모임금지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아니요를 선택한 응답자는 '사적 모임 제한은 계속하되 모임의 인원수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 '소상공인 등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완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일어난 기후위기의 사례는?

-지난 여름의 대장마는 기후위기의 단적인 예로 작용한다. 현재 지구는 더운 곳은 더 더워지고 추운 곳은 더 추워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탄소로 인한 지구 가열은 해양의 온도를 높인다. 물을 끓여보면 알겠지만 물은 금방 데워지지 않는다. 바다 온도가 1°C 이상 올라갔다는 것은 나머지 조건은 그 이상 증가했을 것임을 암시한다. 게다가 지난 30~50년 간 배출한 탄소의 영향으로 더 이상 바다는 에너지를 흡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에너지를 배출하고에 있다. 지금 배출되는 탄소는 향후 30~50년 뒤 여러분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양한 환경오염 중 현재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며 해결방법은 있는지?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가장 위험하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나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등의 이산화탄소는 북극 온도를 상승시켜 북극의 빙하와 얼음을 녹인다. 북극에서의 얼음이 녹는 것은 일어있던 과거의 식물에서 나온 메탄가스가 방출됨을 의미한다.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대기 중에 머물러있는 시간은 짧지만, 온실효과가 30배 이상 높다. 이는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의 대체와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홍보 등의 방식보다 더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처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탄소세 도입은 국가의 경제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뿐더러 기후변화에 효과적인 대처방법이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EU(유럽연합)는 오는 2023년부터 유럽에 탄소세(탄소 국경세)를 시행할 것을 밝혔다. 미국도 이에 동참하는 의견을 표했는데, 이와 같은 제도의 시행이 온실가스 즉 방대한 양의 탄소가 무역장벽이 될 가능성을 유발한다. 예컨대 미국이 탄소세를 도입할 시 미국에 수출하는 많은 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휘발유, 경유 등의 수송용 에너지나 등유, LNG등 모두 탄소 배출을 하는 에너지로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한국도 현재 신재생 에너지 사용량이 2%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탄소세가 도입된다면 우리나라는 원천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신재생 에너지 사용량을 늘려야 할 것이다.

/윤영주, 박다운, 오주영 청소년기자, 이혜빈 인터넷 청소년기자

박은아의 운집 저장소

코로나19 1년, 심리방역과 복지사각지대에 관심



코로나19가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 온지 벌써 1년. 당연히 하게 여겨졌던 우리의 일상이 많이 변했고, 그 변화 속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무던히도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그 많은 노력들 중 무엇보다 안전을 위한 방역이 중요하다. 코로나19 방역하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물리적 방역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물리적 방역만큼 중요한 방역은 심리방역(마음방역)이다.

심리방역(마음방역)이란 코로나19로 인한 과도한 걱정, 공포, 불안 등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심리 지원을 말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또 다른 사회문제도 등장하고 있다.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를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조사하였고 지난18일 4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전국 성인 대상 1-2차 약 1,000명, 3차-4차 약 2,000명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지난해 9월에 진행한 3차 조사에는 보건복지부가 지원기관으로 참여했다. 그 결과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불안', '우울', '자살생각' 등 정신건강 대표 문항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자살생각'은 1차 조사시점인 지난해 3월보다 3차 조사시점인 9월 급격한 증가를 보였고, 12월에 진행된 4차 조사결과 평균점수는 3차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경향을 보였으나 여성은 오히려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가 우리 정신 건강에 얼마나 위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온전한 안전을 위해 물리적 방역 뿐만 아니라 심리방역 또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고, 무엇이 자신에게 적합한 심리방역 방법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은 바로 복지 사각지대의 안전 문제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복지 서비스의 주된 방식인 대면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자 복지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일어났고,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복지 서비스가 일부 중단되거나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다차원적인 지원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아직은 역부족인 것 또한 사실이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에 대해 'K' 형태일 것이라는 전망이 주도적이다. 회복과 하향이 공존하는 형태, 즉 양극화가 심화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라면 복지 사각지대의 안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지금, 사회복지적으로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분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행동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원광대학교 복지보건학부 부교수



자격을 수업 현장 /사진=박시은 청소년기자

청소년, '자격증'을 말하다

비싼 학원비, 응시료와 시험장 부족 개선돼야

워드(with) 코로나 시대, 백신 개발되고 다음 달이면 집중도 시작한다고 하지만 청소년들에게는 아직 먼 이야기일 뿐이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삶의 변화에서 청소년들은 이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발전을 꾀하려 한다. 청소년 자기계발의 영역은 어디까지일까. 그 방향 현장을 찾아가 본다. /편집자 주

청소년 자기계발 ① 자격증 취득

자격증 취득까지의 과정과 애로사항, 그리고 청소년들의 생각은 어떻게.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만나 보았다.

취업 시장이 좁아지는 시대에서 자격증의 중요성은 날이 높아지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자격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청소년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청소년, 취업을 위해 상임, 공업 계열에서 자격증 취득 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만나 사회적 지원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 볼 수 있었다.

특성화고 진학을 준비 중인 익명의 요구한 16세 청소년을 만났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한셀, 정보 처리 기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에 따라 필요한 시간은 각각 달랐으며 비용은 학원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달마다 40만 원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준비하며 애로사항이 있나요? 자격증 자체는 학교 진학 시에 유용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격증에 따라 필기와 실기를 따로 보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기 위해 시간을 더 들이게 되고 학원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다음으로는 강호항공공공에 재학중인 학생(이혜영, 유미화 18세)을 만나 자격증 취득시의 장점과 개선되어야 할 점을 들어 볼 수 있었다.

현재 취득하려는 자격증 무엇인가요? 이혜영: 저는 강호항공공공 상업계열의 항공경영서비스과에 재학 중이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컴퓨터활용능력 2급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미화: 저는 강호항공공공 공업계열의 전기전자과에 재학 중이고 정보처리기능사, 전자계산기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할 시의 장점에 대해 말해주세요. 이혜영: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자신감 향상, 자기개발, 능력 향상,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 뿌듯함, 생활기록부 가산점인 거 같아요.

유미화: 취업 시 내가 남들보다 부족한 부분을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커버할 수 있고, 직장을 퇴직한 뒤에 학원에 취직할 수 있어요.

자격증 취득 시의 문제점에 대해 말해주세요. 이혜영: 작년부터 컴퓨터활용능력 2급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올해 시스템 버전이 변경되어 다시 공부해야 하는 문제점이 생겼어요. 작년에도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필기 부분을 취득했지만, 완전히 달라진 시스템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하는 생각에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 같아요. 한국사능력시험 같은 경우에는 취업 경쟁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 시험 일정은 너무 적어요. 설상가상으로 시험 접수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시간대에 볼 수 없거나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유미화: 학교 공부와 병행하기 때문에 내신 관리가 힘들어요. 매달 학원 비용도 물론이고, 시험 접수 비용이 청소년이 부담하기에 너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기는 지정된 장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 또는 소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시험을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진영 학생(19세)을 만났다.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하고,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컴퓨터 활용 능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했고, 학원에 있을 때만 공부했습니다. 비용은 약 20만 원이 들었습니다.

자격증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학교에서 권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자격증을 많이 취득해 둔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필요한 일이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박시은, 박승민 청소년기자, 김혜빈 인터넷 청소년기자

우리 곁으로 다가온 기후위기

오늘날 탄소 배출이 미래 세대의 문제로 이어져...기후위기를 막을 열쇠는?

오늘날 기후위기는 더이상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재난 상황이 아니다. 기후 악순환의 연속에서 세계는 어떻게 병들어 가고 있는지, 이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 기자단은 '전북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법안 조성을 대표를 만났다. 다음은 인터뷰 일부 일답이다.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발생 후에 일회용품 사용 증가, 배달량 증가 등으로 기후위기가 더 심각해졌다고 생각하는가?

-코로나19는 전염병 사태가 발생하는 순간부터 기후위기를 알리는 전조였다. 앞으로는 코로나19와 관계없이 기후위기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처럼 기후가 악화될 시 예측할 수 있는 미래는?

-학자들은 2100년이 되면 지구에 거의 상당 부분이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우리가 사는 지구의 기온은 현재 1.5°C 이상 올라간 상태이다. 지금까지 45억 년간 지구의 기온은 2°C 이상 증가한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온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 생태계는 적응하지 못하고 지구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기후위기로 10년도 채 되지 않아 인천공항공과 해운대가 잠긴다는 연구결과로 보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가장 시급한 노력은 기후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지구 대기 중 탄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1%밖에 안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온실효과를 보인다.

이제는 석탄, 화력 발전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힘써야 한다. 청소년들은 군산에 화력발전소가 몇 개가 있는지, 그 화력발전소에서는 어떻게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재 군산에는 12개의 민간발전소가 있으며, 최근에는 화력 발전소 반대 운동을 하고 있기도 하다.

기후위기를 대비해 우리나라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문재인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탄소 중립은 지금까지 10년 안에 국가적, 개인적으로 모두의 생활방식을 50% 이상 바꾸 현재 탄소 배출량의 반절을 줄여야만 가능하다. 이는 선연적 의미가 크다.

실질적으로 국가적, 개인적인 생활방식을 바꾸기 어렵기에 좀 더 적극적인 국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